

## 한국판 배우자 학대 척도 타당화 연구\*

김 영 애    최 주 연    최 윤 경†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배우자에 의해 행해지는 학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뿐 아니라 배우자 학대를 목격한 자녀들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Hudson과 McIntosh(1981)가 개발한 Index of Spouse Abuse(ISA)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ISA는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에 대해 평가하도록 개발되었으나, 남, 녀 배우자 모두에게 활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참가자들은 Torres 등(2010)이 제안한 것처럼, 배우자 학대의 준거와 일치하는 법적으로 결혼, 이혼, 또는 동거 중인 일반인 469명이었다(남자 173명, 여자 296명).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그리고 통제행동의 3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배우자 학대 척도와 개념적으로 관련된 갈등 관리 척도와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한국판 배우자학대 척도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3요인 구조를 보였으며 내적합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높은 구성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향후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배우자 학대,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통제행동, 타당화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3S1A3A2043448).

† 교신저자 : 최윤경,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번지  
Tel : 053-580-5405, Fax : 053-580-5313, E-mail : ykchoi@kmu.ac.kr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국가와 인종을 넘어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미국에서 평생 동안 배우자에 의한 학대를 경험하는 유병율은 20%에서 50%(Kamimura, Nancy, Jennifer, Jeanie, & Lenora, 2014; Sprague, Goslings, Hogentoren, Milliano, Simunovic, Madden, & Bhandari, 2014)로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 배우자에 의한 폭력의 발생률은 45.5%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 2014). 특히 국제비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폭력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폭력 허용도는** 35개 국가 중에서 23위(평균 1.19/한국 1.69)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교적 폭력 허용도가 높아 우리 사회의 배우자 학대 위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20위) 보다 남성(23위)이 폭력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남녀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였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4). 배우자 학대는 만성 통증, 위장 질환, 약물 관련 장애의 증가를 포함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외상의 준거에 해당이 된다(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또한 배우자 학대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이를 목격한 자녀들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Wolfe & Jaffe, 1991) 배우자 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배우자 학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대란 일반적으로 폭력과 구타를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신체적 공격행동부터 비신체적인 학대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Gelles & Comell, 1983), 배우자 학대는 배우자에 의해 행해진 학대를 뜻한다.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

대의 정도나 범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련 문헌에서는 대부분 남편이 행한 아내 폭력을 중심으로 아내 학대(wife abuse), 아내 구타(wife beating, wife battering), 아내 폭행(wife assault), 또는 가정 폭력(family violence, domestic violence), 배우자 학대(spouse abuse), 부부 폭력(marital or conjugal violence)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박명혜, 2008). 이들 중 아내 학대나 아내 구타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용되며(Johnson, 1995), 가정 폭력 또는 배우자 학대는 일탈 및 범법 행위의 유형으로서 학대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립적인 개념으로서 배우자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Ferraro, 1989), 배우자 학대는 현재 배우자 또는 동거 상태인 배우자, 전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및 성적 학대로 정의하였다.

배우자 학대 중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오래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지만(이옥희, 2010),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심리적 학대가 상대적으로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은 신체적 학대의 경우 상대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기 쉽고 행위가 분명하며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심리적 학대는 행위의 범위가 비교적 넓고 비가시적이며 좀 더 미묘한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심리적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학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심리적 학대의 목적은 협박, 비하, 부인, 비난, 경제적 횡포, 강요, 위협 등을 통해 배우자를 제압하려는 것으로, 상대의 행동에 위협을 줄 수 있다(Dalton & Schneider, 2001). 이처럼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가

서로 다른 형태의 학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강자가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른다는 측면에서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Johnson, 1995). 뿐만 아니라 심리적 학대의 영향은 신체적 학대 못지 않게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더 치명적일 수 있다(Follingstad, Rutledge, Berg, Hause, & Pol, 1990). 예를 들어, 피해자들은 자존감 저하, 대인관계로부터 고립, 전반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 만족도 저하, 인생에 대한 실패감 등을 경험하고, 때로는 심리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심리적 학대의 결과가 부정적이고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들은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구별하지 않거나 신체적 학대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정윤경, 2010; 홍창희, 박유숙, 2001; Dienemann, Boyle, Baker, Resnick, Wiederhorn, & Campbell, 2000). 최근에 국내에서도 심리적 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체적 학대와 분리하여 심리적 학대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학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이다(이옥희, 2010; 최주연, 2013).

한편, 남편과 아내는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주고받는다(이종선, 권정혜, 2002). 최근 들어 아내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남편의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배우자 및 성폭력 조사(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에 따르면, 일생동안 여성이 배우자에게 강간, 신체적 폭력 등을 경험하는 비율은 35.6%였으며, 남성이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하는 비율은 2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gg,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여성이 배우자에게 경하거나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는 4.9%, 정서적 폭력은 28.6%, 방임은 17.8%, 통제는 36.5%였고, 남성이 배우자에게 경하거나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는 2.8%, 정서적 폭력은 26.7%, 방임은 18%, 통제는 37.6%에 이르러 남성과 여성에서 학대의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 부부 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는 대부분 상호적이라는 점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 뿐만 아니라 아내에 의한 남편 학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배우자 학대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일방향적인 문제가 아니며, 남편과 아내 간에 양방향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배우자 학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를 함께 고려하고 이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배우자 학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는 Straus(1990)가 개발한 갈등관리 척도(Conflict Tactics Scale: CTS, **손정영, 1997**)와 부부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 **이민식, 김중술, 1996**), Hudson과 McIntosh(1981)가 개발한 배우자 학대 척도(Index of Spouse Abuse: ISA, 정서영, 1995; 최주연, 2013) 등이 있다. ISA는 비신체적(non-physical)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고 고등학교 수준의 독해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SA는 일반 인구에서 배우자 학대의 정도나 강도를 측정하도록 제작되었으나 수감된 여성(Eliason, 2005), 일차 진료 장면(Coker, Weston, Creson, Justice, & Balakenny 2005), 병원 응급실

및 지지집단과 같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 문화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용한 척도이다(Sierra, Monge, Santos-Iglesias, Bermudez, & Salinas, 2011).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행된 ISA의 타당화 연구는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 요인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Hudson과 McIntosh(1981)의 연구에서 ISA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나(신체적 학대 6문항, 비신체적 학대 15문항, 기타 9문항),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구조가 확인되지 않았다. Campbell, Campbell, King, Parker과 Ryan(1994)은 출산 전후의 임산부와 매 맞는 여성을 포함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50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세 개의 요인구조(**비신체적 학대 17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통제행동 6문항**)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적 학대 요인에는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때리는 행동이 포함되고, 비신체적 학대 요인에는 배우자를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요구에 따를 것을 명령하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름으로써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통제행동(controlling behavior) 요인에는 성적, 경제적 영역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도록 배우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이후 배우자 폭력과 자살 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583명을 대상으로 한 Cook, Conarad, Bender와 Kaslow(2003)의 연구에서는 Cambell 등(1994)과 유사한 세 개의 요인구조가 가장 적합한 모델로 밝혀졌으나 그 문항 구성은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비신체적 학대 11문항, 신체적 학대 4문항, 통제행동 7문항).

이처럼 ISA에 대한 요인구조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 Sierra 등(2011)은 연구에 참여한 집단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ISA를 측정할 집단이 여자 대학생, 일반 인구 여성, 그리고 학대받은 여성으로 상이하며, 이러한 집단의 다양성과 이질성으로 인해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배우자 학대를 연구하기 위해 ISA가 사용되고 있으나(정서영, 1995; 최주연, 2013), 대개는 별도의 타당화 연구 없이 연구자들이 각자 ISA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문화권 내에서도 ISA의 요인구조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하위척도를 그대로 번안해서 차용하기보다는 국내 자료를 수집해서 ISA의 요인구조를 검증하는 타당화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학대를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ISA를 타당화함으로써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족 문화가 서구와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학대 경험에 대한 자료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ISA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도 과거에 비해 양성 평등의 부부 중심 가족 문화가 확립되고 있으나 아내 또는 남편은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참고 견디며, 주변 사람들은 이를 남의 가정사로 간주하여 관여하지 않는 등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이 배우자 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ISA의 국내 타당화 연구는 ISA의 활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Torres, Navarro, Garcia-Esteve, Tarragona, Ascaso, Herreras, Gelabert 등(2010)의 제안에 따라 결혼,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전)배우자에 의한 학대 경험을 측정함으로써 현실에서 배우자의 준거와 일치된 평가집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배우자 학대는 법적인 결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혼으로 인해 현재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배우자에 의한 학대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평가 집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우자 학대에서 여성 피해자 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변화 양상(여성가족부, 2014; Sugg, 2015)을 반영하여 성별과 상관없이 ISA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항 표현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배우자 학대의 시대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판 ISA(이하 K-ISA)를 구성하고 ISA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 학대를 비롯한 부부 관계의 본질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K-ISA의 요인구조는 선행연구의 경험적 요인구조와 동일할 것인가?

**연구문제 2.** K-ISA의 구성타당도는 어떠한가?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는가?

**연구문제 3.** K-ISA의 요인구조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469)

변인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성별	남자	173	36.9
	여자	296	63.1
연령	30대 이하	91	19.5
	30대	184	39.4
	40대	138	29.6
	50대	47	10.0
	60대 이상	7	1.5
학력	고졸이하	33	7.1
	고졸	85	18.1
	대졸(전문대졸 포함)	267	56.9
	대학원졸 이상	84	17.9
결혼 상태	결혼(재혼포함)	421	89.8
	동거(사실혼)	27	5.8
	별거중	2	.4
	이혼	7	1.5
	기타	11	2.5

국의 일반인 469명으로 남자 173명(36.9%), 여자 296명(63.1%)이었다. 평균 연령은 42.73세 ( $SD=9.25$ )이고 연령 범위는 24세에서 73세 **73세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현재 법적인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421명(89.8%)으로 가장 많았고, 동거(사실혼) 27명(5.8%), 이혼 7명(1.5%)과 별거 중 2명(0.4%) 순이었다. 참가자들의 자료는 반으로 분할해서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 $n=232$ )과 확인적 요인분석( $n=237$ )을 위해 사용하였다<sup>1)</sup>.

1)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232명의 자료에서 참가자들의 거주지역은 대구·경북이 102명(44.0%),



## 절차

먼저, Hudson과 McIntosh(1981)가 개발한 ISA를 심리학 전공 교수 1인, 임상 및 상담 심리학 전공의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1인이 합의를 통해 번역본을 만들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차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이중 언어자 1인의 검토를 받아 문항을 수정하고 제2, 제3연구자가 논의하여 최종 문항을 결정하였다. ISA는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남녀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 문항의 주어 'he'를 '나는'으로 번안하고, 남성을 지칭하는 'his'는 '자기'나 '자신'과 같은 중성적인 단어로 수정하였다. 또한 원의미를 최대한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원문항에서 'female friends'를 '동성친구'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의역하여 우리 언어에서 보다 이해가 용이하도록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6번 문항 'He is jealous and suspicious of my friends'를 '나의 배우자는 나의 친구들을 질투하고 의심한다', 20번 문항 'He does not want me to socialize with my female friends'를 '나의 배우자는 내가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로 번안하였다. ISA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제2연구자가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한 237명의 자료를 포함시켰고,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232명의 참가자들에게 새로이

수도권 82명(35.4%), 부산·경남 19명(8.2%), 충청권 18명(7.8%), 제주 및 기타 11명(4.7%)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237명의 자료는 제2연구자의 학위논문에서 수집된 자료로, 거주 지역을 따로 묻지 않았으나 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수집되었다.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때 ISA 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CTS, Beck(1967)의 우울척도를 함께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측정도구

### 배우자 학대 척도(Index of Spouse Abuse: ISA)

ISA는 Hudson과 McIntosh(1981)가 개발한 척도로서 배우자 학대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원저자는 배우자 학대 척도를 신체적 학대 6문항과 비신체적 학대 15문항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적 학대 문항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기로 위협하며, 병원에 갈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 등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문항이고, 비신체적 학대는 말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매력이 없다고 하고 하인 취급하며 모욕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등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ISA는 총 30문항, 5점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원저자의 내적합치도는 비신체적 학대 .956, 신체적 학대 .872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심리적 학대 .940, 신체적 학대 .890, 통제 행동 .782이었고,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47이었다.

### 갈등 관리 척도(Conflict Tactic Scale: CTS)

CTS는 배우자 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와 Gelles(1990)가 개발한 CTS와 CTS2를 장덕희(2001)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TS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행동,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의 3가지 하위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CTS2는 손정영(1997)이 타당화 하였고 갈등해결 유형으로 협상,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상해의 5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덕희(2001)가 언어적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CTS의 언어적 폭력과 CTS2의 심리적 폭력을 기준으로 7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CTS의 신체적 폭력과 CTS2의 신체적 폭력과 상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문항을 제외한 6문항으로 재구성한 총 1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892이었다.

**Beck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DI는 Beck(1967)이 우울 증상의 유무와 증상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동기적, 행동적 증상들에 상응하는 5개 하위요인의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BDI는 우울환자에서 관찰이 가능한 행동적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증상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A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8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905이었다.

**자료 분석**

먼저, ISA를 구성하는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삭제 시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ISA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3요인 구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3개 요인을 지정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analysis)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이하 EFA)을 실시하였다. EFA를 통해 확인된 3요인 구조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2요인 및 3요인 구조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비교·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CTS 및 BDI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K-ISA 하위 척도의 수준에 따라 집단들 세 집단 또는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CTS와 BDI 점수에서 차이가 유의한지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또는 ANOVA를 실시하였다. 이 때 집단 간 연령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였고 그 밖의 통계는 SPSS 22.0을 사용해서 분석하였다.

**결 과**

**번안한 문항의 기술 통계 및 신뢰도**

번안된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시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였다. 문항 분석 과정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표 2. K-ISA의 문항 기술 통계치, 문항, 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 및 내적합치도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문항-총점 상관	문항 제거시 $\alpha$
SP1	1.86	.88	.68	.95
SP2	2.16	1.04	.63	.95
SP3	1.61	.86	.57	.95
SP4	1.61	.76	.50	.95
SP5	1.83	.88	.56	.95
SP6	1.49	.74	.54	.95
SP7	1.25	.56	.60	.95
SP8	1.49	.73	.61	.95
SP9	1.86	.95	.47	.95
SP10	1.56	.82	.78	.94
SP11	1.50	.72	.72	.94
SP12	1.99	.96	.68	.95
SP13	1.17	.44	.55	.95
SP14	1.66	.90	.44	.95
SP15	1.50	.76	.71	.94
SP16	2.12	1.15	.45	.95
SP17	1.10	.36	.39	.95
SP18	1.30	.70	.45	.95
SP19	1.67	.88	.66	.95
SP20	1.68	.94	.60	.95
SP21	1.64	.84	.48	.95
SP22	1.72	.89	.73	.94
SP23	1.20	.49	.54	.95
SP24	1.17	.46	.53	.95
SP25	1.72	.91	.74	.94
SP26	1.76	.94	.76	.94
SP27	1.36	.68	.77	.94
SP28	1.22	.54	.70	.95
SP29	1.37	.71	.76	.94
SP30	1.16	.44	.62	.95

출하여 평균이 극단적인 값을 가지거나 표준 편차의 값이 작은 문항들을 검토하였다. 문항 평균이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과 분산이 낮은 문항은 수검자의 다양성을 측정하지 못한다(탁진국, 2014). 둘째, 문항-총점간 상관과 문항 제거시 문항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문항 총점 간 상관은 .3이하인 문항을 삭제의 기준으로 삼았다(김남걸, 2001). 문항별 기술통계치 및 내적합치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ISA 전체 평균은 1.10~2.16( $SD=.36\sim 1.15$ )이고,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은 .39~.78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여 모든 문항이 배우자 학대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문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탐색적 요인분석

ISA가 개발 된 후 여러 나라에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졌다. ISA는 처음 개발 되었을 때 비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두 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나(Hudson & McIntosh, 1981), 이후의 연구에서는 비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통제행동의 세 개 요인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Campbell et al., 1994; Cook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한 후 ISA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일반적으로 .40 이상일 때 해당 요인에 속한 것으로 설정하였고, 한 요인에 최소 4문항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한 문항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동시에 부하되었을 때 그 부하량의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 교차 부하(cross loading)된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3개 요인에 의한 전체 설명 변량



은 54.96%로 나타났다. 이 중 첫 번째 요인은 15개 문항이 해당되었으며, 전체 설명량의 26.76%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원척도에서 ‘비신체적 학대(non-physical abuse)’로 명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7개 문항으로, 전체 설명량의 17.22%를 설명하였고, 원척도와 동일하게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로 정의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8개 문항으로, 전체 설명량의 10.99%를 설명하였고, ‘통제 행동(controlling behavior)’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부하량은 심리적 학대 요인은 .83-.56, 신체적 학대 요인은 .80-.74, 통제행동 요인인 .76-.48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교차부하된 문항은 2개로 확인되었으며 9번 문항(나의 배우자는 내가 자기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나를 돌보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과 14번 문항(나의 배우자는 내가 가정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은 각각 2개 요인과 3개 요인에 모두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다. 통계적인 판단으로는 첫 번째 요인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나 문항 내용에 근거하여 임상적으로 통제행동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세 번째 요인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 따라 한국판 ISA의 최종 하위척도와 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 .95, 심리적 학대 .94 신체적 학대 .89, 통제성 .78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ISA 최종 문항구성은 선행연구의 문항 구성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Hudson과 McIntosh(1981), Campbell 등(1994), Cook 등(2003)의 연구와 비교할 때 신체적 학대의 문항들은 비교적 일치도가 높았으나, 심리적 학

대와 통제행동의 경우 연구마다 조금씩 문항 구성의 차이를 보였다.

####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ISA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인 구조와 본 연구의 모형을 함께 비교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Hudson과 McIntosh(1981)의 비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2요인 구조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통제 행동의 3요인 구조이다(Campbell et al., 1994; Cook et al., 2003). 본 연구의 네 번째 모형은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통제 행동의 3요인 구조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chi^2$  검증과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복잡성을 고려하는 IFI(Incremental Fit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IF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볼 수 있으며, RMSEA는 일반적으로 .08 미만의 값을 가지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08 이상이고 .10 미만일 경우는 보통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00). 각각의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원척도에서 제안한 2요인 구조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 209) = 667.25$ , IFI = .793, CFI = .791, RMSEA = .096으로 양호하지 않았고, Campbell 등(1994)이 제시한 3요인 구조는  $\chi^2(df\ 402) = 1206.56$ , IFI = .779, CFI = .777, RMSEA = .092이었다. Cook 등(2003)의 3요인 구조는  $\chi^2(df\ 206) = 610.28$ , IFI = .850, CFI = .848, RMSEA = .091의 적합도를 보였

표 3. ISA 각 하위 요인의 문항 비교

문항	본 연구			A		B			C		
	F1	F2	F3	F1	F2	F1	F2	F3	F1	F2	F3
1 나의 배우자는 나를 비하한다	.78			x		x			x		
2 나의 배우자는 자신의 변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72			x		x					x
3 내가 배우자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라고 말하면, 나에게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낸다	.57					x					
5 나의 배우자는 집안일, 빨래 및 식사 등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되어있지 않으면 매우 화를 낸다	.60			x		x					x
8 나의 배우자는 내가 못생기고, 매력이 없다고 말한다	.67			x		x			x		
10 나의 배우자는 내가 마치 자기 하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82			x		x					x
11 나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모욕하거나, 수치심을 준다	.74					x			x		
12 나의 배우자는 내가 자기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우 화를 낸다	.77					x					x
15 나의 배우자는 나의 지적 능력을 비하한다	.74			x		x			x		
19 나의 배우자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69			x				x			
22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고향을 치고 소리를 지른다	.78					x			x		
25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자꾸 이래저래라 명령한다	.78					x					x
26 나의 배우자는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83			x		x			x		
27 나의 배우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못살게 군다	.77					x			x		
29 나의 배우자는 나를 바보처럼 취급한다	.79			x				x	x		
7 나의 배우자는 주먹으로 나를 때린다	.75				x		x			x	
13 나의 배우자는 무기로 나를 위협한다	.75				x		x				
17 나의 배우자는 내가 병원에 갈 정도로 나를 심하게 때린다	.79				x		x				
23 나의 배우자는 내 뺨과 머리를 때린다	.78				x		x				x
24 나의 배우자는 술을 마시면 나를 학대한다	.73				x		x				
28 나의 배우자는 나를 위협한다	.70										x
30 나의 배우자는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행동한다	.80				x		x				x
4 나의 배우자는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즐기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게 한다			.68		x		x				
6 나의 배우자는 나의 친구들을 질투하고 의심한다			.58	x				x			x
9 나의 배우자는 자기 없이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나를 돌보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50		.48	x		x			x		
14 나의 배우자는 내가 가정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51	.40	.46	x		x					
16 나의 배우자는 내가 집에 있으면서 자녀를 돌볼 것을 요구한다			.60	x				x			
18 나의 배우자는 내가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64	x				x			
20 나의 배우자는 내가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61	x				x			x
21 나의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던 간에 성관계를 요구한다			.76			x					
전체 설명량( 54.96%)	26.76	17.22	10.99	-	-	-	-	-	-	-	-

주1. F1: 비신체적 학대, F2: 신체적 학대, F3: 통제행동.

주2. A: Hudson & McIntosh(1981), B: Campbell 등(1994), C: Cook 등(2003)

표 4. ISA 확인적 요인 분석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chi^2$	df	IFI	CFI	RMSEA
모형 1: 원척도	667.254	209	.793	.791	.096
모형 2: Campbell 등(1994)	1206.56	402	.779	.777	.092
모형 3: Cook 등(2003)	610.282	206	.850	.848	.091
모형 4: 한국-본 연구	1121.32	402	.802	.800	.087 (.081-.093)

다. 본 연구 모형인 3요인 구조는  $\chi^2(df\ 402) = 1121.32$ , IFI = .802, CFI = .800, RMSEA = .087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척도에서 제시한 2요인 구조보다는 3요인 구조가 더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판 ISA의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통제 행동의 3개 요인에 대한 적재치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심리적 학대 .56-.82, 신체적 학대 .65-.82, 통제 행동 .50-.67로 모두 유의했다.

#### K-ISA의 타당도

한국판 ISA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나이, CTS와 BDI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그 결과 한국판 ISA와 성별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심리적 학대와 .21( $p < .01$ ), 신체적 학대 .13 ( $p < .05$ ), 통제 행동 .23( $p < .01$ ), 그리고 ISA 총점과 .22( $p < .01$ )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ISA의 하위척도들 간에는 비교적 유의하게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66( $p < .01$ ), 심리적 학대와 통제 행동은 .79 ( $p < .01$ ), 신체적 학대와 통제 행동은 .63( $p < .01$ )

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한국판 ISA의 각 하위척도는 CTS로 측정된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그리고 우울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학대 요인은 CTS-언어적 학대와 .63( $p < .01$ ), CTS-신체적 학대와 .37( $p < .01$ ), 그리고 우울과 .38 ( $p < .01$ )의 상관을 보였고, 신체적 학대는 CTS-언어적 학대와 .61( $p < .01$ ), 신체적 학대와 .64 ( $p < .01$ ), 그리고 우울과 .26( $p < .01$ )의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통제행동은 CTS-언어적 학대와 .56( $p < .01$ ), 신체적 학대와 .37( $p < .01$ ), 그리고 우울과 .48( $p < .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배우자에 의한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그리고 통제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부 간에 폭력행동에 의한 갈등 해결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ISA로 측정된 학대 경험의 정도에 따라 CTS 및 BDI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먼저, 심리적 학대의 점수를 기초로 상위, 하위 각 30%를 기준으로 세 집단, 즉 심리적 학대가 없음, 경도, 중등도로 구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표 7). 그 결과 세 집단 간 연령에서  $F(2, 229) = 7.55$ ,  $p < .001$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CTS-언어학대와  $F(2, 229) = 33.57$ ,  $p < .001$ , CTS-신체학대  $F(2, 229) = 5.15$ ,  $p < .01$ , 그리고 BDI에서  $F(2,$

표 5. 한국판 ISA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모수추정치

요인	문항	추정치			CR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심리적 학대	심리1	1.13	.73	.06	17.56
	심리2	1.22	.66	.08	15.43
	심리3	.86	.58	.06	13.15
	심리5	.88	.56	.07	12.79
	심리8	.83	.65	.06	15.04
	심리10	1.18	.81	.06	20.31
	심리11	.95	.74	.05	17.96
	심리12	1.22	.72	.07	17.24
	심리15	.99	.74	.06	17.80
	심리19	1.01	.68	.07	16.00
	심리22	1.20	.76	.07	18.58
	심리25	1.23	.77	.07	20.40
	심리26	1.36	.82	.07	20.40
	심리27	.96	.80	.05	19.76
심리29			.80		
신체적 학대	신체7	1.20	.76	.07	18.13
	신체13	.88	.71	.05	16.65
	신체17	.65	.65	.04	14.88
	신체23	.98	.72	.06	17.01
	신체24	.90	.69	.06	16.08
	신체28	1.19	.79	.06	19.20
	신체30		.82		
통제행동	통제4	.88	.57	.09	9.88
	통제6	.91	.60	.09	10.3
	통제9	.97	.50	.11	8.92
	통제14	1.08	.58	.11	10.04
	통제16	1.18	.50	.13	8.96
	통제18	.74	.52	.08	9.18
	통제20	1.29	.67	.18	11.07
	통제21		.58		

표 8. 신체적 학대의 수준에 따른 CTS와 BDI 차이 검증

	신체적 학대(n=232)		t
	경험 없음 <sup>a</sup> (n=182)	경험 있음 <sup>b</sup> (n=50)	
연령	39.59(7.9)	42.78(7.7)	-2.54*
CTS-언어학대	1.19(.23)	1.64(.58)	-8.34***
CTS-신체학대	1.00(.04)	1.15(.36)	-5.31***
BDI	.26(.25)	.50(.44)	-4.93***

\*\* $p < .01$ , \*\*\* $p < .001$ , ( )안은 표준편차.

표 9. 통제 행동의 수준에 따른 CTS와 BDI 차이 검증

	통제 행동(n=232)		t
	경험 없음 <sup>a</sup> (n=118)	경험 있음 <sup>b</sup> (n=112)	
연령	38.12(7.6)	42.56(7.7)	-4.40***
CTS-언어학대	1.14(.19)	1.45(.47)	-6.59***
CTS-신체학대	1.00(.04)	1.07(.25)	-2.81**
BDI	.19(.18)	.43(.38)	-6.26***

\* $p < .05$ , \*\*\* $p < .001$ , ( )안은 표준편차.

표 7. 심리적학대의 수준에 따른 CTS와 BDI 차이 검증

	심리적 학대의 수준(n=232)			F	사후검정
	없음 <sup>a</sup> (n=77)	경도 <sup>b</sup> (n=66)	중등도 <sup>c</sup> (n=87)		
연령	37.91(8.3)	40.00(7.1)	42.60(7.8)	7.55***	a,b<c
CTS-언어	1.11(.18)	1.20(.21)	1.52(.50)	33.57***	a,b<c
CTS-신체	1.01(.04)	1.01(.06)	1.09(.28)	5.15**	a,b<c
BDI	.19(.03)	.27(.04)	.46(.03)	18.16***	a,b<c

\*\*\* $p < .001$ , ( )안은 표준편차.

229)=18.16,  $p < .001$ 로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TS-언어학대 및 CTS-신체학대, 그리고 BDI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심리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신체폭력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F(2, 229) = 31.27, p < .001$ ;  $F(2, 226) = 4.37, p < .05$ ;  $F(2, 226) = 18.97, p < .001$ . 사후 검정에서는 심리적 학대가 중등도 수준에서 폭력 행동과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 행동과 우울감은 심리적 학대가 없는 집단과 경도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중등도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 중에 신체적 학대와 통제 행동을 경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체적 학대 및 통제 행동은 경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t-test*를 통해 CTS-언어학대와 CTS-신체학대, 그리고 BDI를 비교하였다(표 8과 표 9). 그 결과 신체적 학대 집단 간에도 연령의 차이  $t(228) = -2.54, p < .05$ 와 CTS-언어학대 및 CTS-신체학대, 그리고 BDI에서

표 6.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6	7	8
1. 성별	-							
2. 연령	-.10	-						
3. CTS-언어학대	.01	.10	-					
4. CTS-신체학대	.02	.08	.67**	-				
5. BDI	.12	.06	.31**	.22**	-			
6. 심리적 학대	.07	.21**	.63**	.37**	.38**	-		
7. 신체적 학대	.07	.13*	.61**	.64**	.26**	.66**	-	
8. 통제행동	.09	.23**	.56**	.37**	.48**	.79**	.63**	-
9. ISA 전체	.09	.22**	.67**	.46**	.41**	.98**	.77**	.86**
평균		40.28	1.04	1.29	.31	1.53	1.12	1.51
표준편차		.80	.18	.39	.32	.61	.33	.51

\* $p < .05$ , \*\* $p < .01$ , \*\*\* $p < .001$ .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230) = -8.34, p < .001$ ;  $t(230) = -5.31, p < .001$ ;  $t(230) = -4.93, p < .001$ . 이에 연령을 공변인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학대 유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언어폭력과  $F(1, 227) = 65.29, p < .001$ , 신체 폭력  $F(1, 227) = 26.23, p < .001$  그리고 우울감  $F(1, 227) = 23.98, p < .001$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 행동의 경우에도 연령  $t(228) = -4.40, p < .001$ 과 CTS-언어 및 CTS-신체, 그리고 BDI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t(227) = -6.59, p < .01$ ;  $t(227) = -2.81, p < .01$ ;  $t(230) = -6.26, p < .001$ ,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도 CTS-언어와  $F(1, 227) = 40.94, p < .001$ , CTS-신체  $F(1, 227) = 6.51, p < .01$  그리고 BDI에서  $F(1, 227) = 36.93, p < .001$ 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 행동 유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언어폭

력과 신체 폭력, 그리고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이 남성 배우자의 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ISA를 배우자 학대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성별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한 한국형 ISA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판 ISA는 기술통계치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 양호도를 검토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및 통제행동의 3요인으로 이루어진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의 경험적 요인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Sierra 등, 2011). ISA의 원척도는 신체적 학대와 비신체적 학대의 2요인 구조로 분류되었으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Campbell 등(1994)과 Cook 등(2003)의 연구에서는 통제행동 요인이 추가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3요인 구조가 더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각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는 여러 연구에서 다른 하위척도에 비해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체적 학대는 위협이나 폭행과 같은 힘을 사용하는 문항, 예를 들면 주먹으로 때리거나(7번 문항) 죽일 것처럼 행동하는 것(30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일부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위협(28번 문항)은 Campbell 등(1994)의 연구를 제외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로 분류되었다. 또한 좋아하지 않는 성적 행동(4번 문항)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21번 문항)는 본 연구에서 통제 행동으로 분류되었으나 Hudson과 McIntosh(1981), 및 Campbell 등(1994)의 연구에서는 각각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번안 과정에서 원척도의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번안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참여자들이 설문에 응답할 때 참여자가 소속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학대를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위협이나 성적 행동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협이나 성적 행동이 물리적 힘에 의한 강압적인 행동의 관점에서 보면 신체적 학대가 될 수도 있고, 부부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구속하려는 행동으로 본다면 통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Cook 등(2003)은 위협이나

성적 행동이 두 요인에 모두 분류가 가능한데, 선행연구에서 좋아하지 않는 성적 행동은 신체적 학대,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심리적 학대로 분류하여 불일치했기 때문에, 성 관계와 관련된 문항을 애매하다며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도 제외한 결과 다른 연구에 비해 문항수가 가장 적었다.

Hudson과 McIntosh(1981)의 2요인 구조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포함된 비신체적 학대가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학대와와 통제 행동으로 세분되었다. 심리적 학대와 통제 행동은 연구자들 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항들이 많은 편이었다. 먼저, 음주에 대한 문항에서 성질 부림(3번 문항), 친절하지 않음(19번 문항), 소리 지름(22번 문항), 못살게 굴(27번 문항)은 Hudson과 McIntosh(1981)에서 신체적 학대로, 친절하지 않음(19번 문항)과 바보 취급(29번 문항)은 Campbell 등(1994)에서 통제 행동으로, 순종 요구(2번 문항), 집안일 미이행에 화를 냄(5번 문항), 하인 취급(10번 문항), 동의하지 않으면 화를 냄(12번 문항), 명령(25번 문항)은 Cook 등(2003)에서 통제 행동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순종을 요구하거나 화를 내고 명령하는 것을 심리적 학대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 행동으로 보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심리적 학대와 통제 행동은 연구자의 관점과 문화에 따라 분류가 달랐다. 이러한 이유로 Hudson과 McIntosh(1981)는 신체적 학대를 먼저 구분하고 그 밖에 다른 학대를 비신체적 학대로 폭넓게 정의하였다. 자기가 없으면 배우자가 아무 것도 못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것(9번 문항)은 심리적 학대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제 행동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배우자를 비하하는 것일 수 있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자기 말을 들을 것을 요구하는 통제 행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또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문항(14번) 역시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배우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성 행동 관련 문항들(4번, 21번)은 배우자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통제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친절하지 않다는 문항(19번)은 연구자들마다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친절하지 않다는 문항이 광범위하여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요인 구조는 Campbell 등(1994)의 요인구조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ISA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 척도들과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CTS 및 심리적 증상을 측정하는 BDI와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판 ISA의 신체적 학대에 비해 심리적 학대와 통제행동은 우울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그 중에서도 통제행동과 우울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배우자에 의한 심리적 학대와 통제행동은 부부관계에서 좀 더 은밀하고 미묘한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학대라는 지각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눈에 띄는 상처나 흉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학대를 인식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도 인지하기 어렵다. 만일 피해 사실이 알려진다고 해도 신체적 폭력과 달리 행위자에게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학대와 통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점에서 우울과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울에서 학습된 무기력과 통제감과의 관계(Seligman, 1975)와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폭언이나 위협적인 말을 듣게 되면 심리적 충격으로 우울증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심리적 학대에 의한 후유증은 신체적 학대의 영향만큼이나 심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체적 학대가 심리적 학대와 더불어 경험될 때 피해자들은 더 심한 우울, 불안, 공포 등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들은 심리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보고하기도 한다(Tolman & Bhosley, 1991). 이러한 결과가 다른 한편으로는 우울감이 심할수록 배우자의 심리적 학대와 통제행동을 더욱 예민하게 왜곡해서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경우든 배우자에 의한 심리적 학대와 통제 행동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이후 임상적 개입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연령은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학대는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신체적 학대(CTS)와 우울(BDI)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외상 사건과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고 반복되며, 무엇보다 폭력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Walker, 1979).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및 그에 따른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은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남성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행한 결혼을 오래 동안 경험해온 것에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부부의 긴 결혼 기간은 피해자가 반복적인 외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

만큼 피해자들의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Cascardi & O'Leary, 1992).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 통제행동은 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과, 심리적 학대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한국판 ISA는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통제행동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특히, 남성 배우자에 의한 아내 학대 뿐 아니라 여성 배우자에 의한 남편 학대에 대한 사례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남편과 아내가 상호간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주고받는다(이종선, 권정혜, 2002). 본 연구에서 ISA를 남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부부관계를 양방향적이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려고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남편에 의한 아내의 학대만큼이나 아내에 의한 남편의 학대가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경험함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배우자 학대 경험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며, 특히 심리적 학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관계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ISA의 타당화를 통해 향후 부부관계의 특성을 연구할 때 ISA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배우자의 준거에 맞는 평가집단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 인구 집단에서 평가집단을 구성하였다. 따

라서 배우자에 의한 학대의 빈도나 심각도가 유의하게 높지 않았고, 특히 신체적 학대의 경험자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설령 신체적 학대를 경험할지라도,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로 인해 이를 숨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후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 상담소나 쉼터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ISA를 실시함으로써 ISA의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 여 배우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자들의 성별 분포가 고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인구 분포에 비례해서 모집된 것이 아니라 주로 대구, 경북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적인 편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타당화 연구에서는 국내 인구 분포를 고려해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남녀의 성별 분포를 고르게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남, 여 모두에게 적합한 도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ISA는 배우자에 의한 심리적 및 신체적 학대와 아울러 통제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비교적 양호한 구성타당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후 배우자 학대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남걸 (2001). Likert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선정 방법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혜 (2008).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쉼터 입소 여성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

- 위논문.
- 변화순, 원영애, 최은영 (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한국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종류 및 발생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71-701.
- 손정영 (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 2)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남편의 갈등대처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2, 51-87.
- 여성가족부 (2014).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옥희 (2010). 남편의 심리적 폭력이 아내의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요인을 매개변인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13-330.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7(3), 577-600.
- 정서영 (1995). 부부간의 심리적·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2010).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정서적 폭력이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2, 185-209.
- 최주연 (2012). 배우자의 심리적 학대, 해리 및 긍정적 대처방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진국 (2014).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 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창희, 박유숙 (2001). 남편의 폭력이 아내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심리과학 연구, 2, 1-20.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Campbell, D. W., Campbell, J., King, Ch., Parker, B., & Ryan, J. (1994).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Index of Spouse Abuse with African-American women. *Violence and Victims*, 9, 259-274.
- Cascardi, M., & O'Leary, K. D. (1984). Depressive symptomatology, self-esteem and self-blame in battered women. *Journal fo Family Violence*, 7(4), 24-59.
- Coker, A., L., Weston, R., Creson, D., L., Justice, B., & Balakency, P. (2005). PTSD symptoms among men and women survivor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role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Violence and Victims*, 20, 625-643.
- Cook, S, L, Conrad, L, Bender, M., & Kaslow, N, L. (2003).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Index of Spouse Abuse in African American women. *Violence and Victims*, 18, 641-657.

- Dalton, C., & Schneider, E. M. (2001). *Battered women and law*. New York: Foundation Press.
- Dienemann, J., Boyle, E., Baker, W., Resnick, W., Wiederhorn, N., & Campbell, H. (2000). Intimate partner abuse among women diagnosed with depressio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1*, 499-513.
- Eliason, M. J., Taylor, J. Y., & Arndt, S. (2005). Assess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incarcerated women. *Journal of Forensic Nursing, 1*, 106-110.
- Ferraro, K. J. (1989). The legal response to woman battering in the United States. In J. Hanmer, J. Radford, & E. A. Stanko (Eds), *Women, policing, and male violence: International perspectives*(pp.155-184). London & New York, Routledge.
- Follingstad, D. R., Rutledge, L. L., Berg, B. B., Hause, E. S., & Pol, D. S. (1990). The role of emotional abuse in physically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2), 107-120.
- Gelles, R. J., & Cornell, C. P. (1983).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family violence*. Lexington, KY: Lexington Books.
- Hudson, W. W., & McIntosh, S. R. (1981). The assessment of spouse abuse: Two quantifiable dimen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873-888.
- Johnson, M. P. (1995). Patriarchal terrorism and common couple violence: Two forms of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283-294.
- Kamimura, A., Nancy, C., Jennifer, T., Jeanie, A., & Lenora, M. (2014). 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its impact on health: Female and male patients using a free clinic. *Journal of Care Poor Undersery, 25*(2), 731-745.
- Sierra, J. C., Monge, F. S., Santos-Iglesias, P., Bermudez, M. P., & Salinas, J. M. (2011). Validation of a reduced Spanish version of the Index of Spouse Abus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11*(2), 363-383.
- Sprague, S., Goslings, J. C., Hogentoren, C., de Milliano, S., Simunovic, N., Madden, K., & Bhandari, M. (2014). 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cross medical and surgical health care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Violence Against Women, 10*77801213520574.
- Straus, M. A., & Gelles, R. J.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Sugg, N. (2015). Intimate partner violence: prevalence, health consequences, and intervention. *The Medical Clinics of North America, 99*(3), 629-649.
- Tolman, R. M., & Bhosley, G. (1991). The outcome of participation in a shelter sponsored program for men who batter. In D. D. Knudsen & J. L. Miller (Eds), *Abuse and battered: Social and legal responses to family violence* (pp.113-122). New York: Walker DeGruyter. Inc.
- Torres, A., Navarro, P., Garcia-Esteve, L., Tarragona, M. J., Ascaso, C., Herreras, Z., Gelabert, E., Imaz, M., L. Roca, A., Subira, S., & Martin-Santos, R. (2010). Detecting domestic violence: Spanish external validation of the Index of Spouse Abuse. *Journal of*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Family Violence*, 25, 275-286.

Walker, L. E. (1979). Treatment alternatives for battered women: The victimization of women.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Wolfe, D. A., & Jaffe, P. (1991). Child abuse and family violence as determinants of child psychopatholog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282-299.

1차원고접수 : 2016. 00. 00.

심사통과접수 : 2016. 00. 00.

최종원고접수 : 2016. 00. 00.



##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the Index of Spouse Abuse

Young Ae Kim      Ju Jeon Choi      Yun Kyeong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Keimyung University of Daegu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the Index of Spouse Abuse(Hudson & McIntosh, 1981). The ISA was originally developed to ask female partner about her male spouse however, in this study neutral expressions were adapted to apply to all male and female partners. Participants were 469 individuals(173 males and 296 females) out of legally married couple, former spouse and living in the state which was following the criteria of spouse abuse proposed by Torres, etc. (2010).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not only the three factor structure of psychological abuse, physical abuse and control behavior was extracted but the fit of this model was also confirm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t*-test or ANOVA and ANCOVA (covariate: age)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CTS and BDI scores according to the level of psychological, physical abuse, and control behavior of K-ISA. The results showed high internal consistency. In conclusion, K-ISA was found to be a reliable and valid scale of measuring three abusive factors in Korean population. Limitations of this study discussed in relation to future studies.

*Key words* : spouse abuse, psychological abuse, physical abuse, controlling behavior, validity.